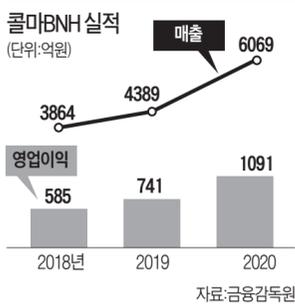


이번엔 건강식품... 'K제조' 위상 높인 콜마

세계 1위 비타민 '센트룸' 생산 콜마BNH, 간단한 검사 통과 '글로벌 톱' GSK 제품 첫 수출 음성 공장서 3개 품목 제조 위탁 생산 품목 늘어날 듯

이렇다 할 생산시설 하나 없었던 대한민국을 산업화 30여 년 만에 '제조강국' 반열로 끌어올린 주역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업체였다. 2000년대 들어 '반도체 최강국' 타이틀을 한국에 안겨준 데 이어 TV, 휴대폰, 백색가전도 차례차례 접수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제조능력은 세계 최고'란 인식이 세계에 확산됐고, 이후 배터리, 화장품, 바이오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21년부터는 'K제조' 위상을 보여주는 산업 리스트에 건강기능식품이 추가된다. 콜마BNH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센트룸' 생산을 맡았기 때문이다. 센트룸을 보유한 GSK컨슈머헬스케어는 지난해 매출 100억파운드(약 15조8000억원)를 올린 세계 1위 건강·일반의약품 업체다. GSK 제품을 국내 업체가 만드는 건 콜마BNH가



처음이다.

◆건기식에서도 '제조강국' 도약 콜마BNH는 지난해 매출 6069억원에 영업이익 1091억원을 거둔 국내 1위 건기식 제조업체다. 거래를 맺은 회사만 100곳이 넘는다고 콜마BNH는 설명했다. 이렇게 다양한 건기식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업체는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건기식 업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콜마BNH가 센트룸 생산을 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 공장 시설과 품질관리 능력이 GSK의 '눈높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만 6개월 넘게 걸렸다. 이를 확인하느라 GSK는 콜마BNH의 음성공장에서도 만든 시제품을 별도의 공인시험기관으로 가져가 일일이 분석

콜마BNH 주요 고객사

고객사	제품
에터미	헤모힘(면역기능 강화 제품)
중근당건강	락토팩(프로바이오틱스)
링거위터	링터(마시는 수액)
GSK컨슈머헬스케어	센트룸(비타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콜마BNH가 생산을 맡았다는 건 GSK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이번 센트룸 생산 계약 때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구체 사유가 없으면 계속 만든다'는 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에는 콜마BNH에 '제조DNA'를 전수해준 한국콜마의 평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콜마가 오래전부터 에스티로더 로레알 루시담 등 글로벌 화장품 업체 제품을 만들면서 쌓은 '믿을 수 있는 업체'란 명성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추가 수주 가능성 콜마BNH가 GSK와 '겨레 물꼬'를 틈에 주목하고 있다. GSK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만큼 향후 신뢰가 쌓이면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콜마BNH가 이번에 생산하는 품목은

센트룸 산하 8개 품목 중 3개(프로, 실버 프로, 포커스에너지)다. 나머지는 국내 판매물량조차 대만에서 만든 걸 수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콜마BNH가 앞으로 완벽한 제조·품질관리 능력을 보이면 센트룸 생산품목과 생산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가 쌓이면 GSK 산하 다른 건기식과 일반의약품도 수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글로벌 제약사인 GSK와 화이자가 각각 건기식 및 일반의약품 사업을 떠나서 설립한 GSK컨슈머헬스케어는 센소다인, 파로돈타스, 폴리덴트, 에드빌, 오트리빈, 테라플루 등 수많은 '블록버스터' 제품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계약에 주목한 다른 글로벌 건기식 업체가 국내 기업을 찾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콜마BNH뿐 아니라 코스맥스바이오도 지난해 웨이치아이나에 젤리 제품을 공급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내 건강은 평소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건기식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며 "생산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아시아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현/김우섭 기자

유한양행·녹십자, 반려견 치료 나서

제약·바이오업계 새 성장동력 치매·암 치료제, 백신 등 내나



반려동물 치료제를 성장동력으로 찾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체 대상 의약품보다 개발 기간이 짧고 시장 전망도 밝아서다. 치매, 암, 코로나19 등 치료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달 초 지엔티파마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인 '제다큐어'(사진)의 국내 판매계약을 맺었다. 제다큐어는 지엔티파마가 지난 2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달 말이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처방 아래 구매할 수 있다. 반려견 치매 치료제로는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사례다. 유한양행은 제다큐어 유통을 계기로 의약품, 헬스케어 등으로 반려동물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치매는 반려견 11~12세의 28%, 15~16세의 68%가 진단받을 정도로 흔해 시장성이 큰 질환 분야로 꼽힌다. 치매에 걸린 반려견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곤 한다. 1999년 화이자 내놓은 치료제로 셀레길린이 있지만 개체별 치료 효과가 제각각이고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다큐어는 치매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체내 축적을 막고 뇌신경세포가 죽는 걸 억제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낸다.

GC녹십자랩셀도 지난 3월 자회사 '그린벳'을 출범시키며 반려동물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린벳은 반려동물용

진단키트, 백신, 의약품, 특수 사료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같은 달 동국제약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신규 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종근당 자회사인 경보제약도 지난해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3753억원에서 2027년 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치료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세포치료제 개발사인 박셀바이오는 오는 9월 반려견 전용 항암제인 '박스루간-15'의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달 말 게어시드와 계약을 맺고 유통도 준비 중이다. 씨엔팜은 코로나19 동물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치료제가 출시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체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들도 동물용 의약품 개발 행렬을 고려하는 추세"라며 "동물용 의약품은 인체용보다 허가를 받기도 쉽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서 시장도 성장세라는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주성엔지니어링 흑자전환

1분기 매출 753억원... 2배 증가

반도체 장비기업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352억원) 대비 113.9% 증가한 753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억원 적자에서 161억원으로 뒤흔었다. 영업이익률은 21.4%를 기록하며 작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장비 수주가 증가한 게 실적 개선에 이끌었다. 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상승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DB금융투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82.6% 증가한 334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50억원 적자에서 올해 700억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벤처1세대 황철주 회장이 1993년 창업한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웨이퍼(원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입히는 증착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엔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 용인에 부지 2만6000㎡ 규모로 연구개발(R&D)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분기 말 매출에 반영되지 않은 수출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이산화탄소·라돈까지 날려주는 '환기청정기'

으뜸종기 디아스포라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많이 가동해도 없앨 수 없는 실내 유해물질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발암물질인 라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에 오래 머물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디아스포라의 퓨어싱크 환기청정기(사진)는 이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준 제품이다. 공기청정기에 환풍기와 전열교환기 기능을 갖춰 한 대로 세 대의 기능을 하는 신개념 환기청정기다.

미국산업위생협회에 따르면 밀폐 공간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초과하면 두통이나 졸음 등을 유발하고, 5000ppm을 초과할 경우 뇌손상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환기를 하면 다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고, 덥고 축운 날 환기를 하면 실내 온도가 떨어지거나 냉각시켜 공급한다. 습도



국내 첫 창문설치형 청정기 온도차 걱정없이 환기 가능

기의 이산화탄소 및 각종 유해가스, 미세먼지 등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강제 환기를 시켜준다. 또 바깥 공기를 실내로 공급할 때 해파필터(H13)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한다.

내장된 전열 교환 소자가 계절에 맞게 바깥 공기의 온도를 실내 온도에 맞게 데우거나 냉각시켜 공급한다. 습도

교환 기능도 있어 비오는 날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준다. 원태연 디아스포라 사장은 "배출되는 공기의 폐열을 이용해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가 섞이지 않으면서 열만 교환되는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실내 공기 열을 재활용하고 환기 기능도 갖춰 전기료는 일반 공기청정기의 절반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한 달 내내 24시간 사용해도 월 전기료가 3300원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강점은 소음저감 기술. 3중 소음 차폐 구조로 설계돼 기계음이 없고 요란한 속삭음(20dB)에서 조용한 사무실 소음(40dB) 수준을 유지한다.

국내 최초로 창문에 설치하는 형태의 환기청정기여서 설치기사의 도움 없이 택배로 제품을 받아 누구나 15분이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굿디자인(GD)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원 사장은 "공기청정기가 줄 수 없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기청정기 시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대규 기자

"중소 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늘려야"

수혜 기업 4600곳 늘어나 1182억원 세금 감액 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이 적자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만 2004개로 4605개 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자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의 소급공제 기간을 두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공모전 이제 좀 알 것 같애!”

하루 40-50개, 한 달 1500여 개
새로운 공모전·대외활동 정보.

2012년 출범... 언론사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공모전 사이트

서포터즈 및 공모전 관련 커뮤니티 상시 운영
(유학생 기자단, 올콘 오픈카톡 짹짹이방)

공모전 대외활동 No.1 사이트
https://www.all-con.co.kr/